

Daniel: 5 – Sermon Notes

Title: “Nebuchadnezzar’s Dream“

Scripture: Daniel 2:1-13

Date preached: July 7th 2024

Scripture: Daniel 2:1-13

1 Now in the second year of Nebuchadnezzar’s reign, Nebuchadnezzar had dreams; and his spirit was *so* troubled that his sleep left him. **2** Then the king gave the command to call the magicians, the astrologers, the sorcerers, and the Chaldeans to tell the king his dreams. So they came and stood before the king. **3** And the king said to them, “I have had a dream, and my spirit is anxious to know the dream.”

4 Then the Chaldeans spoke to the king in Aramaic, “O king, live forever! Tell your servants the dream, and we will give the interpretation.” **5** The king answered and said to the Chaldeans, “My decision is firm: if you do not make known the dream to me, and its interpretation, you shall be cut in pieces, and your houses shall be made an ash heap. **6** However, if you tell the dream and its interpretation, you shall receive from me gifts, rewards, and great honor. Therefore tell me the dream and its interpretation.”

7 They answered again and said, “Let the king tell his servants the dream, and we will give its interpretation.” **8** The king answered and said, “I know for certain that you would gain time, because you see that my decision is firm: **9** if you do not make known the dream to me, *there is only one* decree for you! For you have agreed to speak lying and corrupt words before me till the time has changed. Therefore tell me the dream, and I shall know that you can give me its interpretation.” **10** The Chaldeans answered the king, and said, “There is not a man on earth who can tell the king’s matter; therefore no king, lord, or ruler has *ever* asked such things of any magician, astrologer, or Chaldean. **11** *It is* a difficult thing that the king requests, and there is no other who can tell it to the king except the gods, whose dwelling is not with flesh.” **12** For this reason the king was angry and very furious, and gave the command to destroy all the wise *men* of Babylon. **13** So the decree went out, and they began killing the wise *men*; and they sought Daniel and his companions, to kill *them*.

1 느부갓네살왕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째가 되는 해에 꿈을 꾸고 그것으로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2 그래서 왕은 자기 꿈을 해몽할 점쟁이와 마법사와 무당과 점성가를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들어와서 왕 앞에 섰을 때 3 왕은 이상한 꿈을 꾸고 그 뜻을 알고자 번민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4 그러자 점성가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아무쪼록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 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5 “내 명령이다. 너희는 내가 꾸는 꿈을 말하고 해몽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몸을 갈기갈기 찢고 너희 집을 잣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6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말하고 해몽하면 내가 너희에게 많은 선물과 상을 주고 큰 영예를 주겠다. 그러니 내 꿈과 뜻을 말하라.”

7 “대왕께서 그 꿈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8 “너희는 내 명령이 취소될 수 없음을 알고 시간을 벌려는 속셈이 분명하다. 9 너희가 내 꿈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어차피 너희를 처벌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내 앞에서 못된 거짓말을 꾸며 말하기로 합의하고 때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너희는 그 꿈을 나에게 말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10 “이 세상에는 대왕께서 알고자 하시는 일을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이나 통치자도 점쟁이나 마법사나 점성가에게 이런 것을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11 대왕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신이 아니면 그것을 왕께 말할 자가 아무도 없으며 또 그런 신은 사람들 가운데 살지도 않습니다.” 12 이 말을 듣고 왕은 몹시 화를 내며 바빌론의 박사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13 박사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궁중에서는 다

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찾고 있었다.

Review

Today we are beginning chapter number 2 of Daniel. But before we do so let's briefly review some of the important things we looked at last time as we concluded chapter 1.

As we have seen following his conquest of Judah king Nebuchadnezzar took the elite of Judean society back to Babylon. It would be 70 years before this period of exile ended, and they were permitted to return to their homeland. The exile of the Jews took place in three separate and distinct waves. In chapter one of Daniel we are reading about those taken in the first wave of 605 BC. Those taken first included members of the royal family, nobles and the elite. Included amongst this first wave were our heroes; Daniel, Hananiah, Mishael, and Azariah.

They were selected to go and join a three year training program. The Babylonians were training up men who could serve in the king's court. To be selected was quite an honour. It meant you would receive the best education, the finest food and many other benefits not normally afforded to captured slaves. Daniel and his friends were given new Babylonian names and were expected to rapidly assimilate into the life and culture of Babylon.

This however was not something these devout and God fearing men could do. They determined very early on that they would not compromise when it came to issues of their faith. They probably unwillingly accepted their new names, but when it came to the food they were given to eat they were firm. They openly refused to eat the king's food. They did not want to consume something that would defile them.

The issue was resolved when Daniel proposed a ten day test. During this time they would only eat a vegetable and fruit based diet. At the end of the test their physical health and appearance would be assessed. God as we saw blessed their decision to remain faithful to Him and at the conclusion of the test they looked better and healthier than the other students. They were permitted to forgo the king's food and eat a vegetable based diet.

We then jumped forward to the end of the training period. Three years of intense study was now over. It was time to graduate. Daniel and his friends are brought before Nebuchadnezzar who was interview them personally. As they are being prepared to work in his palace, Nebuchadnezzar wants to be sure that these men have the intellect and skill required.

They will serve as his advisors so no doubt he wants to be assured that they can provide him with good sound advice. Once again we read that God blessed these men. In particular, we read the following;

“He gave them knowledge and skill in all literature and wisdom; and Daniel had understanding in all visions and dreams.” (Dan 1:17)

They are exceptional graduates. As a consequence the interviews with the king go very well. He is greatly impressed by these young men. They were all at the top of the class. In fact, they were far superior (ten times better) than all the magicians and astrologers who were in all his realm. Just pause there for a moment.

These young men, who were probably in their late teens at this time were far better, wiser and more knowledgeable than men who had perhaps devoted many years, of even a lifetime to the acquisition of wisdom. All this after only three years of training. What's the explanation for this? That's a simple question to answer. Only God is able to do this.

Nebuchadnezzar has no hesitation in giving them all jobs at the royal court. That these young

foreign men were given such important positions certainly rankles some in the court. They are intensely jealous of Daniel and his friends. It seems grossly unfair that these foreigners should be rewarded like this. However despite their plots against him Daniel will go on to enjoy a very long and fruitful career in the civil service. We actually know how long he served in this capacity. Chapter one ends by telling us he served until the time of King Cyrus. As I said last time King Cyrus (aka Cyrus the Great) was the king of Persia. His forces conquered Babylon in 539 BC. So if Daniel began work in 603 BC, and finished in 539 BC that means he worked as a civil servant for a staggering 63 years!

Today we are moving into chapter 2. The chapter starts by telling us about a troubling dream experienced by king Nebuchadnezzar.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2 장을 시작합니다. 그 전에 지난번 1 장을 마무리하면서 살펴보았던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정복한 후에 유대인들 중 엘리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왔습니다. 이 유배 기간이 끝나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허락되기까지 70 년이 걸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유배 행렬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서 1 장은 기원전 605 년에 있었던 첫 번째 그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잡혀간 사람들은 왕족, 귀족,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룹에는 우리의 영웅들인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3 년 간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바벨론인들은 왕의 궁정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거기에 선정된 것은 영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포로로 잡힌 노예들에게 제공되지 않는 최고의 교육, 최고의 음식 및 기타 많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새로운 바빌론식 이름을 받았고 바빌론의 생활과 문화에 빠르게 동화되도록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유대 젊은이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마지못해 그들의 새 이름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음식에 관해서는 그들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왕의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더럽히는 어떤 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10 일 동안의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야채와 과일 중심의 음식만 먹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그들의 건강과 외모가 평가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실하고자 그들의 결정을 축복하셨고, 시험이 끝났을 때 그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음식 대신에 야채 중심의 식단이 허용되었습니다.

드디어 훈련이 끝났습니다. 3 년간의 집중 훈련이었습니다. 졸업할 시간이 되었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에게 나아가서 직접 면접을 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궁전에서 일하기 위해 훈련받은 이 사람들이 필요한 지성과 기술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그의 조언자가 될 것이므로 그들이 적합한 조언을 줄 수 있는지 확신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을 축복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 네 소년들에게 학문과 그 밖의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으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단 1:17)

그들은 탁월한 졸업생입니다. 그 결과 왕과의 인터뷰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는 이 젊은이들에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 훨씬 우월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의 왕국 전체에 있는 모든 마술사와 점성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10 배 더 나은). 잠깐 여기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십대 후반의 이 젊은이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 수년, 심지어 일생을 바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더 현명하고 영리했습니다. 이런 일이 단 3년 동안의 훈련 만으로 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왕실의 일자리를 주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이 외국 젊은이들이 그토록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실에 왕궁의 일부 사람들은 불쾌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몹시 질투합니다. 외국인들에게 이런 보상을 주는 것이 정말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정부 관리로서 아주 오랫동안 일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1장은 그가 고레스 왕 때까지 일했다고 언급하면서 끝납니다. 고레스 왕(일명 고레스 대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 그의 군대가 기원전 539년에 바빌론을 정복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기원전 603년에 일을 시작해서 기원전 539년에 끝냈다면 그는 무려 63년 동안 정부 관리로 일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곤 괴로운 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Dreams

Today, and in fact for the next 3 weeks we are going to be focusing on Nebuchadnezzar's dream. So I thought we'd spend a little time setting the scene and talking about dreams. A simple definition of a dream is as follows,

Dreams are imaginary sequences, some with clear narratives, and some without that play out in people's minds as they sleep.

Most dreams consist of a series of images, sensations, and emotions that range from pleasant and exciting to boring or even terrifying.

Do you ever experience particularly vivid or realistic dreams? Have you ever had a dream that was just bizarre, troubling, arresting or funny? Do you have recurring dreams? The same dream repeated again and again. Are you prone to getting disturbing or upsetting dreams?

Dreams are fascinating things that have always defied a full and comprehensive explanation. In ancient Egypt, dreams were seen as a way to communicate with the gods and to receive divine guidance. In ancient Greece, dreams were seen as a way to access the unconscious mind and to gain insights into one's innermost thoughts and desires. In the Middle Ages, dreams were often seen as a way to communicate with the devil and were often associated with witchcraft and sorcery.

So dreams have puzzled, amazed and confused us for centuries. I'm sure like me you've often awoken after a particularly vivid or memorable dream and wondered where it came from, and what it means. I sometimes wish I had the equivalent of an image recorder in my brain recording my dreams. I'd love to watch some of my most interesting dreams again. It's staggering what goes on in the brain whilst we sleep.

Did you know that everyone dreams for around 2 hours every night. Its quite common for people to have several dreams each night, each typically lasting from between 5 to 20 minutes. The longest dreams lasting from between 30-45 minutes occur in the early hours of the morning.

Researchers estimate that the average person has about 1,460 dreams a year. That's about four per night. You may question these statistics and consider them to be a wild exaggeration of what you

personally experience. There's a good reason for this. We forget about 95% of all our dreams shortly after waking. So simply put, we all dream (a lot) but we quickly forget our dreams. Here's another interesting fact. Most people report dreaming in colour, but roughly 12% of people claim to dream only in black and white.

Given the frequency of dreams as part of the human condition we might expect the bible to have something to say on the issue. This is certainly the case. Dreams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Bible. They are used at times as a means through which God communicates with people. Throughout the biblical text, dreams are employed to convey messages, provide guidance, offer prophetic insights, and reveal divine will. I did a little research and this is what I found.

Throughout the pages of scripture 21 dreams are mentioned. Genesis has the highest frequency of dream accounts with 10, Matthew records 6, Daniel mentions 3 and Judges and 1st Kings each record one dream. Six of the dreamers are kings, only one is a woman and two of the dreamers are named Joseph. All of them occur whilst the person is asleep. Isn't that obvious you may ask. Yes, but it's an important thing to note. We need to be aware of the distinction between dreams and visions. Generally speaking dreams occur when the person is asleep and visions when they are awake.

So with that little bit of background concluded let's dig into today's passage.

꿈

오늘과 앞으로 3 주 동안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꿈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상황을 설정하고 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에 대한 간단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꿈은 상상의 연속이며, 명확한 이야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잠을 자는 동안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펼쳐진다.

대부분의 꿈은 즐겁고 신나거나 때로는 지루하거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다양한 이미지, 감각, 감정들을 포함합니다. 특별히 생생하도록 현실적인 꿈을 꾸 적이 있나요? 기괴하거나 괴롭거나 재미있는 꿈을 꾸 적이 있나요? 반복적으로 꾸는 꿈이 있나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꾸는 똑같은 꿈. 뒤숭숭한 꿈을 자주 꾸니까?

꿈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꿈을 신과 소통하고 신성한 인도를 받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꿈을 무의식에 접근하는 수단 그리고 인간의 가장 깊은 생각과 욕망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꿈을 종종 마귀와 소통하는 방법으로 여겼고 종종 주술 및 마법과 연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은 수세기 동안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놀라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특별히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꿈을 꾸 후 잠에서 깨어 그 꿈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내 꿈을 기록하는 이미지 레코더가 내 두뇌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흥미로운 꿈 중 일부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모든 사람이 매일 밤 약 2 시간 동안 꿈을 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람들이 매일 밤 여러 가지 꿈을 꾸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며, 각 꿈은 일반적으로 5~20 분 동안 지속됩니다. 30~45 분 동안 지속되는 가장 긴 꿈은 이른 아침 시간에 발생합니다.

연구자들은 인간이 평균적으로 1년에 약 1,460 개의 꿈을 꾸다고 추정합니다. 하룻밤에 4 개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통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지나친 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에서 깬 직후 꿈의 약 95%를 잊어버립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모두는 꿈을 (많이) 꾸지만 재빨리 잊어버립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컬러 꿈을 꾸

다고 보고하지만 대략 12%의 사람들은 흑백 꿈만 꾸다고 합니다.

인간이 꿈을 꾸는 빈도를 고려할 때 성경이 이 문제에 관해 무언가 말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꿈은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소통하시는 수단으로 꿈을 사용하십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꿈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침을 제공하고, 예언적 통찰력을 주고, 신성한 뜻을 드러내는 데 사용됩니다. 제가 조사를 좀 했는데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21 가지 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가 10 개의 꿈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가장 많습니다. 마태는 6 개, 다니엘은 3 개, 사사와 열왕기는 각각 하나의 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 자 중 여섯 명은 왕이고, 한 명만 여자이고, 꿈꾸는 자 중 두 명의 요셉이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그들이 잠든 동안 발생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꿈 dreams 과 환상 visions 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꿈은 사람이 자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환상은 깨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럼 이 간단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의 본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Now in the second year of Nebuchadnezzar’s reign, Nebuchadnezzar had dreams; and his spirit was so troubled that his sleep left him.

Chapter two begins by telling us about some deeply troubling dreams experienced by king Nebuchadnezzar. They began in the “**second year of his reign.**” Now if your brain works anything like mine this statement might cause you to pause. We know that Daniel began his training in 605 BC. It concluded in 603 BC. So Daniel had yet to complete his training and had not been employed in the kings' court. How would he have been on hand or called upon to help the king in this matter. Fear not, I have an explanation.

It's all to do with how the Babylonians counted, or measured a monarch's reign. King Nebuchadnezzar became king in 605 BC. But the records only began to count his reign at the beginning of the new calendar year. So 604 BC was his “first” official year as king. 603 BC was his second year. This was the year Daniel and his friends graduated. Problem solved.

We've mentioned Nebuchadnezzar on a number of occasions but never really fleshed out his character. Let me tell you a little about this man.

He is without question one of the best known Old Testament villains. He conquered Jerusalem, destroyed Solomon’s temple, and took many Jews captive. He is also respected as being a great general and military tactician. Under him the Babylonian empire grew and expanded. He also has a well earned reputation for being a particularly cruel and vicious man. Though this was far from unusual in the ancient world.

One story taken from 2nd Kings will illustrate just how cruel he could be. Judah at that time was being ruled by the client king Zedekiah. Zedekiah decided to rebel against Babylonian rule. Things did not go well for poor Zedekiah. The city of Jerusalem fell and Zedekiah was forced to flee with his troops.

He was pursued and captured. As a punishment Nebuchadnezzar had Zedekiah's sons killed before him. Then he had his men gouge out Zedekiah's eyes.

The intent was that the final thing he would remember seeing in this world was his sons being killed (2 Kgs 25).

King Nebuchadnezzar was also known to roast people over fires and watch them burn as they were flayed to death. So he was unquestionably a cruel and barbaric man.

But this is only half the story. He was in truth a complex character.

You see whilst on the one hand he was cruel on the other he also promoted art and architecture.

Under his rule the city of Babylon became an architectural wonder. It became a city full of beautiful buildings and outstanding works of art. He also had the world renowned hanging gardens

constructed.

Anyway back to the account. We learn that Nebuchadnezzar was plagued by a series of, or perhaps a recurring distressing dream. We will later discover that this dream was sent by God. The Lord in His wisdom planned to use His faithful servant Daniel to describe and interpret the dream. In this way, God’s name would be glorified and Daniel and his friends would be honoured and rewarded.

The author adds that the dream affected Nebuchadnezzar badly. His “spirit was troubled.” The effect was so pronounced that “sleep left him.” He spent his nights tossing and turning as sleep eluded him. Why should he have been so disturbed? Well as I spoke about before ancient people had a different understanding of dreams than we do today. Dreams, especially in the Neo-Babylonian empire were considered to be significant. Bad dreams in particular were considered bad omens that foretold of future trouble. They believed that their gods were attempting to communicate important things through this medium. For this reason trying to understand dreams was a serious business. They even employed people who were trained in the art of **oneiromancy** (one – ir – on-mancy). This is a form of divination in which dreams are interpreted in order to predict the future. So his dream clearly worried him. We should remember that Nebuchadnezzar was a new king, and he had yet to really establish his full rule and authority. Revolts and uprisings were still taking place. All of these things may have contributed towards his anxiety. He desperately wanted to discover exactly what it meant. So in order to find out he calls together all his expert advisors. Let us read on.

1 느부갓네살왕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째가 되는 해에 꿈을 꾸고 그것으로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 매우 괴로운 꿈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꿈은 그가 “**왕위에 오른 지 2년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두뇌가 저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이 구절에 가우뚱거리게 됩니다. 다니엘의 훈련 과정은 기원전 605년에 시작해서 603년에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 2년째에는 다니엘이 아직 훈련을 마치지 못했고 왕궁에서 일하지도 않았습니. 그런데 다니엘이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부름을 받고 왕을 도왔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빌론인들이 군주의 통치 연대를 세는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기원전 605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기록은 새 달력 연도가 시작될 때부터 계산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604년은 그가 왕으로 즉위한 “첫 번째” 공식적인 해였고, 기원전 603년은 두 번째 해였습니다. 603년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훈련을 마친 해였습니다. 그러니 오류가 아닙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을 여러 번 언급했지만 그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적은 없습니다. 그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구약성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악당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솔로몬의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는 또한 훌륭한 장군이자 군사 전술가로 유명합니다. 그의 지휘 아래 바빌론 제국은 성장하고 확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잔인하고 사악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고대 세계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한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잔인한 지 보여줍니다. 당시 유다는 꼭두각시 왕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빌론의 지배에 반역을 일으켰는데 상황이 그가 의도한대로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시드기야는 그의 군대와 함께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추격을 받고 체포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형벌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먼저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 부하들을 시켜 시드기야의 눈을 뽑게 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기억할 것이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왕하 25 장).

또한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을 불에 구워서 가족이 벗겨져 죽는 것을 지켜본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의심할 바 없이 잔인하고 야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에 관한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는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잔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과 건축을 장려했습니다. 그의 통치 하에서 바빌론 도시는 건축학적 경이로움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건물과 뛰어난 예술품이 가득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중 정원을 건설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느부갓네살이 계속적으로 꾸는 꿈 때문에 괴로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지혜에 따라 충실한 종 다니엘을 사용하여 그 꿈을 묘사하고 해석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영예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그 꿈이 느부갓네살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는 “번민하였”고, 그 결과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잠을 못자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불안해 했을까요? 제가 말했듯이, 고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와는 꿈에 대해 다른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바빌론 제국에서는 꿈이 중요하게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나쁜 꿈은 미래의 문제를 예고하는 나쁜 징조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이 꿈을 통해 중요한 것을 전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꿈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oneiromancy** 라는 기술을 훈련받은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꿈을 해석하는 점술의 한 형태입니다.

그의 꿈은 그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새로운 왕이었으며 아직 자신의 온전한 통치와 권위를 확립하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반란과 봉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불안을 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 꿈이 정확히 무슨 뜻인 지 필사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조언자들을 소집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 Then the king gave the command to call the magicians, the astrologers, the sorcerers, and the Chaldeans to tell the king his dreams. So they came and stood before the king. 3 And the king said to them, “I have had a dream, and my spirit is anxious to know the dream.”

Who will be able to help the king with this problem? Well, he has a whole array of spiritualists, diviners, occultists, and scholars to give him advice. To be on the safe side, to cover all possible bases and ensure he gets an answer he calls ALL of them to come and counsel him. Let's look in some detail at who he summoned.

The first group mentioned are the *Magicians* or *soothsayers* (*hartom*). These men functioned in a similar way to the magicians of ancient Egypt. Most likely they were Babylonian priests who could read, write and foresee the future. The term *hartom* literally refers to a person who writes, in this

case an occult scribe.

Next we have the *astrologers* (*assāp*). These men were conjurers, enchanters or necromancers. They were occult practitioners who specialised in magic ritual and contacting the spirit world.

Thirdly we have the *sorcerers* (*kashaph*).

This is referring to people best described as a witch or sorcerer. Just like witches through the ages they used herbs, charms, and potions to foretell the future and manipulate the natural world.

Finally, we have the *Chaldeans* (*kasdim*). As I mentioned to you before the term “Chaldean” has a number of different meanings. It is on occasion used to refer to the people of Babylon in general. On other occasions it is used to designate a specific geographic region in the empire.

Here though it is being used to indicate a particular elite class of wise men. These men were highly trained astrologers, fortune-tellers and magicians.

That such a wide range of “spiritual experts” existed in Babylon tells us a lot about their cultural world-view. Here was a people desperately trying to find answers to life's big questions. Unfortunately they were looking for the answers in all the wrong places. There is never any truth to be found in consulting demons.

But are things really all that different today? What does the average non-believer do when confronted by a difficult issue or complex conundrum? Do they turn to the bible, seek God in prayer or arrange an interview with a pastor. Hardly.

Here's what they do to find an answer. They go and visit a psychiatrist, they book a session with a fortune teller, they read their horror-scope, they acquire some self-help books or seek wisdom in the New Age. So not really anything different from what Nebuchadnezzar did back in ancient Babylon. Fortunately for us as followers of Christ we do not have to resort to superstitions or the occult. We can consult God's Word and go to Him directly in prayer. What a comfort this should be for us in times of distress and anxiety.

Whatever title these men held they were all connected by one thing. They all would have claimed the ability to read the stars, commune with spirits, conjure the dead, or cast spells to tell the future and uncover hidden knowledge. Simply put they all believed they could help out the king and earn his considerable favour. They all believed that with their occult skills they could provide an interpretation to his dream. So in they shuffle and stand before the king. He tells them he is anxious to know what this dream means. His mind will not find peace until an answer is provided. Here is their big opportunity to impress the king and advance in his royal favour. Let's read on.

2 그래서 왕은 자기 꿈을 해몽할 점쟁이와 마법사와 무당과 점성가를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들어와서 왕 앞에 섰을 때 3 왕은 이상한 꿈을 꾸고 그 뜻을 알고자 번민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문제로 누가 왕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조언을 해줄 수많은 심령술사, 점쟁이, 신비술사, 학자들이 있습니다. 왕은 꿈에 대한 해몽을 얻고자 모든 방안을 망라하기 위해 그들 모두를 불러 조언을 구합니다. 그가 누구를 불렀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마술사 또는 점쟁이(*hartom*)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대 이집트의 마술사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활동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읽고 쓰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바빌론의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하르툼(*hartom*)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글을 쓰는 사람, 이 경우에는 이교도 서기관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점성가(*assāp*)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술사, 강령술사였습니다. 그들은 주술 의식과 영계와의 접촉을 전문으로 하는 마법 수행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마법사(*kashaph*)가 있습니다. 이들은 마녀나 마법사로 묘사되는 사람들입니다.

고대의 마녀들처럼 그들은 미래를 예언하고 자연계를 조작하기 위해 약초, 부적, 물약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대아인(*kashaph*)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갈대아'라는 용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때때로 바빌론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다른 경우에는 제국의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정 엘리트 계층의 현자를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 사람들은 고도로 훈련된 점성술사, 점쟁이, 마술사였습니다.

바빌론에 그토록 광범위한 “영적 전문가”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문화적 세계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그들은 인생의 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썼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모두 잘못된 곳에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조언에서는 어떤 진실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상황은 그 때와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성경을 읽거나 기도로 하나님을 찾거나 목사와의 면담을 주선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을 거의 없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그들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정신과 의사를 찾고, 점쟁이와의 상담을 예약하고, 별자리 운세를 보고, 스스로를 돕는 방법에 관한 책을 구입하거나 뉴에이지 the New Age 사상에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 고대 바벨론에서 행했던 일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미신이나 신비주의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기도로 직접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과 불안의 때에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이들이 뭐라고 불렀든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별자리를 읽고, 영혼과 소통하고, 죽은 자를 불러내고, 주문을 걸어 미래를 말하고 숨겨진 지식을 밝혀내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왕을 돕고 왕의 충애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법 기술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들어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은 자신이 꾸는 꿈의 의미를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대답을 들을 때까지 그의 마음은 평화롭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이 왕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그의 충애를 듬뿍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 Then the Chaldeans spoke to the king in Aramaic, “O king, live forever! Tell your servants the dream, and we will give the interpretation.” 5 The king answered and said to the Chaldeans, “My decision is firm: if you do not make known the dream to me, and its interpretation, you shall be cut in pieces, and your houses shall be made an ash heap. 6 However, if you tell the dream and its interpretation, you shall receive from me gifts, rewards, and great honor. Therefore tell me the dream and its interpretation.”

It's the Chaldeans who speak up first. You will note that Daniel tells us they spoke in Aramaic. Aramaic was widely used in business and government throughout the empire. It was the lingua franca of its day. I mentioned back in my introduction about the unique construction of the book of Daniel. It is written in two languages. Chapter one was in Hebrew, here in verse 4 of chapter 2 the writer switches to Aramaic. He will continue in this language until chapter 7 verse 28.

Why did the Chaldeans speak first? There was I think a very good reason for this. It is because of their knowledge and expertise in the subject of dreams. They possessed many books in their libraries that had dreams classified by subject matter. So if for example someone said they had dreamt about “cows” they would look up “cows” and tell them what this meant.

They are confident therefore that they can align the king's dream with their reference books and furnish him with an answer.

This then is why they step forward and ask him to tell them the dream. This was probably the normal, time honoured procedure. The king recalled his dream, the Chaldeans went away and consulted their books and then reported back. I'm sure we can imagine how this went. Whatever the king said the report from the Chaldeans would be a favourable one, that painted the king and his empire in a good light.

However on this occasion things are different. Nebuchadnezzar senses that this dream is too important to risk lies and invented predictions.

So he demands that they tell him his dream, before providing an interpretation. It's a serious test for his diviners and magicians. If the self-proclaimed astrologers and occultists can't tell him what he dreamed, then it's unlikely they could tell him what the dream means.

He most likely suspects that they have been lying to him in the past and inventing their interpretations. Nebuchadnezzar for all his cruelty and pride was a smart man. He tells them that there will be many rewards and great honour for the man who can tell him what he dreamt, and what it means. But, if they are unable to describe his dream and give him an interpretation they will be in trouble. I spoke to you before about the cruel vicious nature of king Nebuchadnezzar. Here we see it exemplified, to fail him will result in being cut into pieces and having your house burnt to the ground.

So the Chaldeans find themselves in a precarious position. Tell the king his dream and provide an interpretation or be killed. Let's find out how they react.

4 그러자 점성가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아무쪼록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 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5 “내 명령이다. 너희는 내가 꾸 꿈을 말하고 해몽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몸을 갈기갈기 찢고 너희 집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6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말하고 해몽하면 내가 너희에게 많은 선물과 상을 주고 큰 영예를 주겠다. 그러니 내 꿈과 뜻을 말하라.”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들은 갈대아인입니다. 다니엘은 그들이 아람어로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람어는 제국 전역의 사업과 정부에서 널리 사용되었는데 그 당시의 공통어 *lingua franca* 였습니다. 제가 다니엘서의 독특한 구성에 대해 서문에서 언급했습니다.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1 장은 히브리어로 기록했는데, 여기 2 장 4 절에서는 아람어로 바꿨습니다. 다니엘은 7 장 28 절까지 아람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왜 갈대아인들이 먼저 나섰을까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꿈과 관련된 그들의 지식과 전문성 때문입니다. 그들은 꿈을 주제별로 분류한 책들을 서고에 많이 쌓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소"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소"와 관련된 책을 찾아 꿈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꿈과 관련된 참고 서적을 이용하여 왕에게 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먼저 나서서 왕에게 꿈을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통상적으로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을 것입니다. 왕이 자기가 꾸 꿈을 말하면 갈대아인들이 자기들의 책을 찾아보고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왕이 꿈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 갈대아인들의 보고는 호의적일 것이며 왕과 그의 제국에 대해 좋은 말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느부갓네살은 거짓말로 예측을 꾸며 내기에는 그 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해몽을 하기 전에 자신이 꾸 꿈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점쟁이와 마술사에게 심각한 시험입니다. 자칭 점성술사와 마법사들은 왕이 꾸 꿈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으면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왕은 그들이 과거에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들의 해석을 꾸며냈다고 의심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의 모든 잔인함과 교만에도 불구하고 영리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과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많은 상과 큰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의 꿈을 말하지 못하고 해몽을 못한다면 그들은 곤란에 처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잔인하고 사악한 성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예를 볼 수 있는데 왕을 실망하게 하면 그들은 잔인하게 죽음을 당할 것이고 집도 모두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갈데아인들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왕이 꾸 꿈이 무엇인지 말하고 해석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시다.

7 They answered again and said, “Let the king tell his servants the dream, and we will give its interpretation.” 8 The king answered and said, “I know for certain that you would gain time, because you see that my decision is firm: 9 if you do not make known the dream to me, *there is only one decree for you! For you have agreed to speak lying and corrupt words before me till the time has changed. Therefore tell me the dream, and I shall know that you can give me its interpretation.*”

Let's at least applaud the Chaldean's persistence. They ask again that the king tell them his dream. Then they will be able to furnish him with an explanation. The king though is not budging on his stance. He remains adamant. He sees right through their words. They are simply trying to buy some time and coax a little out of him with which they can work. Perhaps they are hoping with time that he might forget the dream altogether. The king clearly does not trust these men fully, he possibly even suspects that they have lied to him before when it comes to dream interpretation or future prediction. We should remember that this incident occurred early in his reign. He had only been on the throne for three (two official) years.

So these advisors or counsellors may well have been the ones he inherited from his father. Therefore he may not have come to fully know or trust them yet. Therefore the king reiterates his position. Tell him the dream and its interpretation or die!

Let's continue.

7 “대왕께서 그 꿈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8 “너희는 내 명령이 취소될 수 없음을 알고 시간을 벌려는 속셈이 분명하다. 9 너희가 내 꿈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어차피 너희를 처벌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내 앞에서 못된 거짓말을 꾸며 말하기로 합의하고 때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너희는 그 꿈을 나에게 말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적어도 갈데아인의 끈기에 큰 박수를 쳐줍니다. 그들은 왕에게 그 꿈을 말해 달라고 다시 요청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해몽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왕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호합니다. 왕은 그들의 말을 꿰뚫어 봅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간을 벌고 왕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왕이 그 꿈을 완전히 잊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왕은 이 자들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들이 꿈 해석이나 미래 예측과 관련하여 이전에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통치 초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지 3년(공식적으로는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의 아버지 때부터 조언자로서 일해 왔을 것입니다. 왕은 아직 그들을 완전히 알지도, 신뢰하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왕은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반복합니다. 그에게 꿈과 그 해석을 말하라 아니면 모두 죽으리라. 계속하겠습니다.

10 The Chaldeans answered the king, and said, “There is not a man on earth who can tell the king’s matter; therefore no king, lord, or ruler has *ever* asked such things of any magician,

astrologer, or Chaldean. 11 *It is a difficult thing that the king requests, and there is no other who can tell it to the king except the gods, whose dwelling is not with flesh.*

Aren't these two verses fascinating. Let us think for a moment. Now if it were you or I standing before the king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we say?

We'd tell him that what he asked was impossible. We would say to him that we cannot possibly see inside his mind and know what he dreamt.

But these men cannot say such things. You see they had developed a whole body of knowledge, a whole system that prospered on the belief that they COULD interpret dreams, and predict the future. They had devoted their lives to the pursuit of such information. But look at what they are actually admitting here. Allow me to paraphrase what they say.

We cannot do what you ask your majesty. It's completely impossible for one human being, even an occultic practitioner like us to see inside the mind of another human being. Only, are you ready for their startling admission? Only a divine being can do this. This of course will later on open the door for Daniel to reveal to Nebuchadnezzar the power of the God of Israel.

They further add to this by saying that what the king asked was unprecedented. This is not how they are used to working. They claim that no king, lord or ruler has ever made such an unreasonable demand of his seers. Basically they are chastising the king for making such an impossible demand. How do you suppose the prideful and arrogant Nebuchadnezzar will react to such a claim? Exactly as you'd expect. Let's read on.

10 “이 세상에는 대왕께서 알고자 하시는 일을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이나 통치자도 점쟁이나 마법사나 점성가에게 이런 것을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11 대왕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 신이 아니면 그것을 왕께 말할 자가 아무도 없으며 또 그런 신은 사람들 가운데 살지도 않습니다.”

이 두 구절이 흥미롭지 않나요? 잠시 생각해 봅시다. 만일 여러분이나 제가 이 상황에서 왕 앞에 서 있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가 명령한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겠죠. 그의 마음 속을 볼 수 없고 그가 꾸는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꿈을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그들의 지식과 사상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정보를 추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실제로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의역하자면 우리는 왕께서 요청하신 일을 할 수 없다. 인간이, 심지어 우리와 같은 신비술 수행자라도 다른 인간의 마음 속을 보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오직 신적인 존재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들은 왕이 요청한 것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들은 전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왕이나 통치자도 자신의 선견자들에게 것처럼 불합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상 그들은 그렇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왕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느부갓네살이 그러한 주장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확히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2 For this reason the king was angry and very furious, and gave the command to destroy all the wise *men* of Babylon. 13 So the decree went out, and they began killing the wise *men*; and they sought Daniel and his companions, to kill *them*.

I do not imagine that ancient tyrannical rulers had a great deal of patience. They were used to be showered in praise and affection and having people obey them instantly. So the Chaldeans stalling for time, and then accusing him of being unfair does not please the king. He reacts in a very predictable way by becoming furiously angry and violent. He orders that all the wise men of Babylon be rounded up and killed. We cannot be absolutely sure, but it seems likely that this edict only included the city of Babylon and its surrounding districts. It was from these locations that the wise men were summoned to help the king. It seems grossly unfair to think that “wise men” many hundreds of miles away would be killed. In defence of this position we might note here that the wise men, magicians, seers and astrologers were employed by the king. In order to be able to advise him they would have had to have lived in or near the capital city of Babylon.

Once the order has been passed soldiers are despatched to arrest and then execute the wise men. Arrest warrants are also issued for Daniel and his three friends. Why you might ask were they included here. They were not summoned to advise the king on this matter why should they be executed.

Well, we know that they were recent graduates. We might describe them as novices or trainees working for the king. Their age and inexperience meant that they were not deemed able to help the king on this occasion. However they were still employed as royal advisors. This was why they were unfairly included in this all-inclusive decree for the slaughter of “wise men.”

We do not have any kind of time frame for how all this played out. But it seems likely, given the king's rage and impetuous nature that the killing began immediately (Dan 2:15). This after all was not an era in which people were arrested, put in jail and then several months later had a trial. The speed of the arrest and executions may also explain why it was that Daniel and the others were unaware of what was going on.

Let me emphasise a very important point here.

That Daniel and his friends were included here in the list of those to be killed does not mean that they were engaged in the kinds of wicked occult practices used by these other “wise men.” Daniel and the others never practised any form of divination. They were simply included because of their status as wise men and royal advisors.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see God reveal Nebuchadnezzar's dream to Daniel.

But let us conclude today's sermon by thinking about what we can learn from today's account.

12 이 말을 듣고 왕은 몹시 화를 내며 바빌론의 박사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13 박사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궁중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찾고 있었다.

고대의 폭군들은 인내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칭찬과 애정을 받는 것은 당연했고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므로 갈대아인들이 시간을 지체하면서 그가 부당하다고 비난한 것은 왕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는 몹시 화를 내고 난폭하게 반응합니다. 그는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칙령에는 바벨론 도시와 그 주변 지역만 포함되었던 것 같습니다. 왕을 돕기 위해 현자들이 소집된 곳도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현자들”까지 죽이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이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여기에 등장하는 현자, 마술사, 선견자 및 점성가들은 왕에 의해 고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왕에게 조언할 수 있으려면 그들은 수도 바빌론이나 그 근처에 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명령이 내려졌고 병사들이 파견되어 현자들을 체포하고 처형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도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포함되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왕에게 조언하기 위해 소환되지 않았는데 왜 처형을 당해야 합니까?

그들은 최근에 훈련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왕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초심자나 견습생 정도였을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여 이 경우 왕을 도울 수 없다고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들은 왕실 고문으로 고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자들”을 살육하라는 이 포괄적 명령에 부당하게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왕의 분노와 성급한 성격을 고려하면 즉시 죽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단 2:15). 이 시대는 사람들이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고 몇 달 후에 재판을 받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체포와 처형이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죽임을 당할 자들의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현자”들이 사용하는 종류의 악한 신비술에 참여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떤 형태의 점술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현자이자 왕의 조언자라는 지위 때문에 포함되었을 뿐입니다.

다음번에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Lesson to learn

I have one lesson that I have drawn from today's study.

오늘 공부에서 얻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Trust and faith in the right things

I remember many years ago when I first came to Korean riding in someone's car. Affixed to the front mirror was what looked like a strip of paper with some Chinese characters scribbled on it. Puzzled I asked the driver what it was. She told me that it was a good luck charm. When she had passed her driving test her father had visited a shaman and paid for a charm to keep her safe as she drove.

You are probably aware of the shaman and their place in Korean culture. The shaman in Korea fulfils the same function as the Chaldeans in Babylon. They serve or act as an intermediary between this world and the spirit world. Dis-ease in this world is a result of issues in the spirit world. Only they can smooth over these problems. This is at least what they claim. Do not be fooled, what they offer is an illusion, a deception a “game.” It is a game that many of them play very well. They look, dress, speak and act the part, but they have no real power or authority. They cannot really solve issues and problems for the living by contacting the spirits of dead ancestors. If you put any kind of faith or trust in them you are only destined for disappointment. They cannot provide solutions or real truth. They cannot even provide you with a lucky charm that will protect you whilst driving.

In western countries we might not have the kinds of shamans that exist in Korea. But we do have men and women who serve in a similar capacity. We have psychiatrists, counsellors, and lots of other people in white coats with many letters after their names. We also have plenty of “religious” leaders who are skipping merrily towards destruction and are happy to drag others along with them. These people claim they have the answers to all our problems. Again this is a deception, a lie and a game. Follow these people at your own peril.

In our account today King Nebuchadnezzar had a troubling dream. He astutely guessed that it represented something portentous. Who would help him decipher its meaning? Who could he turn to for help? He sought the answers from the occult practitioners on his staff. Why you might

wonder did he go to these men? Weren't there other wise and intelligent men available to help The answer is very simple, not really. The Babylonian culture was a dark pagan one. They embraced evil and wallowed in dark demonic practices. Who else would he seek for guidance.

In John's gospel Jesus tells His hearers that Satan is the father of all lies (John 8). He means by this that deception and lying originated with Satan. Satan and his minions lie. That is their nature. Therefore anything they reveal to human beings cannot be trusted.

God by contrast cannot lie. That is His nature. He never deceives; He never distorts or misrepresents what He says or does. This means that we can rely completely on what He says.

So when it comes to who we should trust and where we should put our faith there is only one right place. When it comes to seeking answers there is only one right place to look. We will not find any comfort or truth in things devised by man. We will not find it in our own efforts. We certainly won't find any in the evil schemes, and false religions devised by Satan. The only place we will find it is in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He is the light that pierces the darkness and provides illumination. May He be the one we cling to, seek out and have absolute faith in today and forever.

옳은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

저는 수년 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누군가의 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앞 거울에 한자가 휘갈겨 쓰여진 종이 조각 같은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운전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것은 행운의 부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면허 시험에 합격하자 그녀의 아버지는 무당을 방문하여 딸이 운전하는 동안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줄 부적을 샀습니다.

여러분은 무당과 한국 문화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무당은 바벨론의 갈대아인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과 영계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영계의 문제로 인한 것이고, 오직 그들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들이 제공하는 것은 환각이고 속임수인 "게임"입니다. 그들이 아주 잘하는 게임입니다. 그들은 보고, 옷을 입고, 말하고, 행동하지만 실제적인 힘이나 권위는 없습니다. 그들은 죽은 조상의 영혼을 접촉함으로써 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조금이라도 믿고 신뢰한다면 당신은 실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해결책이나 진실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당신을 보호해 줄 행운의 부적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서구 국가에는 한국에 존재하는 그런 무당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역할을 하는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상담사, 그리고 각종 타이틀을 가진 흰색 가운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유쾌하게 멸망을 향해 뛰어 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기꺼이 끌어들이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만이고, 거짓말이고, 게임입니다. 이 사람들을 따른다면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괴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뭔가 불길한 일을 의미한다고 예측했습니다. 그 의미를 해독하는 데 누가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마법사들에게 답을 구했습니다. 왜 그가 이들에게 도움을 청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현명하고 지식있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대답은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문화는 어두운 이교도 문화였습니다. 그들은 악을 받아들이고 어두운 악마의 관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탄이 모든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십니다(요한복음 8 장). 속임수와 거짓말이 사탄에게서 유래했다는 뜻입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인간에게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든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본성입니다. 그분은 결코 속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그분의 말씀이나 행위를 왜곡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을 두어야 할 올바른 상대는 단 하나뿐입니다. 해답을 찾고자 할 때 바라보아야 할 올바른 상대는 단 하나뿐입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것에서 어떤 위로나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탄이 꾸며낸 사악한 계략과 거짓 종교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어둠을 뚫고 비추는 빛이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추구하고 현재와 영원토록 절대적인 믿음을 드리는 상대가 예수님이시기를 기원합니다.